

제11차 국제 Botrytis 심포지움을 다녀와서

정 영 룬

경상대학교 미생물학과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네델란드 Wageningen에서 제11차 국제 Botrytis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본인을 포함한 6명의 국내 Botrytis 연구자가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심포지움이 개최된 장소는 WICC(Wageninge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로 국제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숙소는 약 300 m 가량 떨어진 WIR(Wageningen International Residence)에 정하였는데 이곳의 시설은 우리나라 호텔수준이었으나 가격은 아주 저렴하였다. 심포지움에 참가한 사람은 총 33개 국가에서 180여명 이었는데, 네델란드 본국인, 프랑스, 독일의 과학자가 약 70명 정도였고 나머지 여러나라가 있었다. 국내의 참가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경상대학교 미생물학과 김재원 교수, 이창원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소 조광연 박사, 김병섭 선임연구원과 서울대 농생물학과의 박은우 교수였다. 본인은 서울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암스텔담 공항에 도착하여 약 2시간을 기다려 화학연구소, 박 교수 팀과 합류하여 Wageningen으로 향하였는데, 박 교수의 친절하고도 익숙한(여러번의 방문 경험이 있었음) 안내로 쉽게 회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심포지움의 내용은 구두발표(오전 강의) 44건, 포스터 발표 72건으로 구성되어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여 점심 식사시간을 빼고는 저녁까지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시간 이후에는 각 부문별로 Discussion 시간을 마련하여 모처럼 일주일간을 아무런 생각없이 공부만을 하는 즐거운(괴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내용은 유전학, 분류 및 분자생물학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있었으며 구체적인 부문 별 내용은 표 1과 같다. 재미있는 내용으로는 프랑스 Champagne 지역에서 채집된 균주를 분석한 결과 2종류의 transposable elements, Boty와 Flipper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아마 Botrytis

표 1. 제11차 국제 Botrytis 심포지움 발표내용의 분야별 건수

분	야	강의(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유전		6	4
살균제 및 저항성		7	12
역학		6	12
생물적 방제		7	16
종합적 관리 및 진단		6	7
병원성 관련 요인		6	14

*cinerea*는 이 element의 유무에 따라 2 종류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경상대학교 연구팀의 김재원 교수가 발표한 *exo-polygalacturonase* 분리 결과는 유럽 균주의 대부분이 생산하는 *endo-PG*와 달라 관련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심포지움 이후 여러나라에서 균주분양 및 *exo-PG antibody*의 분양요청이 있었다(표 2). 독일의 한 연구자는 지금까지 병원성이 여러 종류의 식물세포 분해 효소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온 것과는 달리 병원성의 정도가 균주의 active oxygen species(OH*-radical 등) 발생정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고, 이슬라엘의 Elad 등은 생물적방제제로 상품화 된 *Trichodex*를 소개하였다. 연구발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자 주소는 우리나라 참석자 전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요청하시길 바란다.

심포지움 기간 중 하루 오후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다. 회의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가량 달려 네델란드 북부의 바다를 막아 만든 제방에 도착하였으며 그 위로 약 30분 가량 달려 북해의 전형적인 어촌으로 꾸며진 민속촌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날 저녁에는 암스텔담의 선상(옛날 바이킹족이 쓰던 해적선과 유사)에서 전형적인 네델란드식으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이때 각국의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그때 연주되던 음악, 바다 및 파티풍경과 먹고 마셨던 광경들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이 외에 하루저녁 시간을 내어 국내 참가자들 일부와 암스텔담의 밤거리(반드시 구경하라는 이미 다녀온 분들의 제안에 따라)를 잠시 구경하는 시간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지막 날 저녁시간에는 회의 주최측의 여러 연구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생각 밖으로 한국에서 많은 학자가 참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으며 언제인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도 이 심포지움을 한 번 개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의 참석으로 모든 *Botrytis* 연구자가 수행한 다방면의 연구 결과를 동시에 접할 수 있었던 큰 소득 외에도 *Botrytis* 연구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앞으로 연구정보와 재료의 교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수확을 얻었다. 다음의 12차 심포지움은

표 2. 국내 참가자의 연구발표 내용

발 표 자	발 표 제 목
○ 정영륜, 최인실, 김대혁, 이창원, 김재원	○ Analysis of genetic variation in <i>Botrytis cinerea</i> using RAPD markers.
○ 김재원, 이태호, 정영륜, 이창원	○ Purification of <i>exo-polygalacturonase</i> from <i>Botrytis cinerea</i> T91-1.
○ 이창원, 정옥진, 김재원, 정영륜	○ Isolation and structural analysis of a gene encoding phosphoinositide specific phospholipase C homolog from the phytopathogenic fungus, <i>Botryotinia fuckeliana</i> .
○ 김병섭, 박은우, 조광연	○ Comparative fitness of fungicide-resistant phenotypes of <i>Botrytis cinerea</i> in Korea.

프랑스의 Dijon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Wageningen을 떠났다.

심포지움을 마친 후 본인과 같이 심포지움에 참석한 동료교수 2명과 함께 기차로 Belgium을 통과하여 프랑스 TGV를 타고 Paris에 도착, 4박 5일 간의 여름휴가를 보낸후 귀국하였다. 동료교수 중 이창원 교수는 Paris 7대학에서 박사(국가)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불어를 모르는 우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여행 guide(곳곳에서 그곳의 역사와 전통을 자세히 설명)를 무료로 채용한 복(?)도 누렸다. 여러곳의 관광지 외에도 그곳 근교의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를 방문하였는데 훌륭한 연구시설과 안정되고 활기찬 것 같은 연구 분위기에 참으로 부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또 미생물 연구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역사적인 Pasteur Institute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으나, 불행하게도 방문날짜가 일반인에게는 연구소를 개방하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바깥 철문 밖에서만 잠시 서성이다가 돌아왔다. 본인이 발견한 새로운 세균(*Enterobacter pyrinus*)이 저곳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업무 담당자(curator) 이름이라도 알고 왔으면 들어가 볼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